

## 생태경제학과 탈성장

조지스큐-로이젠과 라투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호 \_ 동국대학교

### 논문요약

세르주 라투슈(Serge Latouche)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통해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설명함으로써 니콜라스 조지스큐-로이젠(Nicholas Georgescu-Roegen)의 생태경제학을 탈성장으로 전환시켰다. 더구나 그는 지속 가능한 탈성장이나 허먼 델리(Herman Daly)의 균제상태 경제에 대해 성장지상주의나 발전지상주의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문화적 요인의 변화, 즉 문화혁명만은 자신만의 탈성장론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의 탈성장론에서 '상상력의 탈식민화'나 발전지상주의의 극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상상력의 탈식민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그래서 이를 통한 탈성장론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유토피아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탈성장론은 문화적 요인에 기초해서 자신만의 특징을 확보했지만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 유토피아이라는 그의 주장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 주요어: 생태경제학, 탈성장, 상상력의 탈식민화, 발전지상주의, 문화혁명

## 1. 서론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성장과 환경의 조화, 즉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sup>1)</sup> 이 개념은 1987년 「브룬틀란트(Brundtland) 보고서(Our Common Future)」를 통해 처음 나타났지만, 기본 문제의식은 이미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The Limits to Growth)에 담겨 있었다. 후자의 보고서는 인간의 욕구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방식을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는데(Braillard 1982, 58-59),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무한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 이러한 판단은 맬더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흔히 신맬더스주의(Neomalthusian)로 분류된다. 이는 곧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자연자원의 물리적 한계를 중시하는 맬더스와 그 후계자들의 관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등장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양립이나 성장과 환경의 조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환경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우(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문제)가 종종 나타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의심 혹은 비판이 더

---

1) 성장과 발전은 종종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이 글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속 확대되고 있다. 탈성장(degrowth)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비판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대안이다.

탈성장(degrowth)은 2008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탈성장’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것의 프랑스어인 ‘Décroissance’는 이미 1972년에 고르(A. Gorz)의 글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탈성장(La Décroissance, le journal de la joie de vivre)』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지가 발간되면서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Demaria et al. 2013, 195). 보나이우티(Bonaiuti)는 탈성장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조지스큐-로이젠(N. Georgescu-Roegen)의 ‘생태경제학’<sup>2)</sup>과 함께 히르쉬(Fred Hirsch)의 성장의 사회적 한계(social limits to growth)<sup>3)</sup>를 꼽는다(Bonaiuti 2012, 34-36).<sup>4)</sup> 조지스큐-로이젠에 따르면, 경제 과정은 엔트로피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조차 현실성이 없다. 히르쉬에 따르면, 경제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위재(positional goods)<sup>5)</sup>를

- 
- 2) 조지스큐-로이젠은 생태경제학의 선구자로 평가되지만, 그는 자신의 관점을 ‘생명 경제학(bioeconomics)’으로 정의한다.
  - 3) 보나이우티는 칼 폴라니(Karl Polanyi)도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탈성장론의 또 다른 원천으로 본다(Bonaiuti 2012, 38-41).
  - 4)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나 글로벌 정의의 문제가 탈성장론의 또 다른 배경으로 언급되기도 한다(Demaria et al. 2013, 195-201; Eriksson & Andersson 2010, 1-2, 135-136).
  - 5) 지위재는 지위 상징(status symbol)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주요 획득 동기로 작용한다. 히르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교육,

획득하기 위한 지위 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이 치열해지고(Eriksson & Andersson 2010, 126-128).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이른바 성장과 지위재 소비의 순환관계(circular relationship)로 이어진다. 이러한 순환관계가 작동될 경우, 생태계 파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오늘날 탈성장론은 성장의 물리적 한계를 강조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점차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성장의 물리적 한계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탈성장론이 주로 성장하지 않는 경제(a non-growing economy), 제로 성장 경제(zero-growth economy),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문제로 집약되지만(Ellwood 2014, 168, 180),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 논의가 주로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를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sup>6)</sup> 후자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라투슈(S. Latouche)를 중심으로 한 모스(MAUSS: Mouvement Anti-Utilitariste dans les Sciences Sociales) 그룹<sup>7)</sup>이다. 현재 이 그룹은 시장체제와 자본주의에 의

---

별장 등을 지위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Hirsch 1999, 28-29).

- 6) '성장의 사회적 한계'는 히르쉬가 처음 사용했지만, 이 글에서는 히르쉬의 정의를 넘어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된 성장의 위기 전반을 보여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 7) 모스(MAUSS) 그룹은 1981년부터 발간된 학술지 『르뷔 뒤 모스(*La Revue du MAUSS*)』를 중심으로 반공리주의 관점에서 경제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연구하는 지식인 그룹을 의미하며, 라투슈는 『르뷔 뒤 모스』의 편집자인 카이에(A. Caillé)와 함께 이 그룹을 대표한다([https://en.wikipedia.org/wiki/Mouvement\\_](https://en.wikipedia.org/wiki/Mouvement_)

해 작동되는 경제지상주의(economicism)에 대한 문화적 비판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탈성장운동을 주도하고 있다(Martinez Alier 2012, 61). 그중에서도 라투슈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비판하면서 탈성장을 대안을 제시한다.

엄밀히 말해서, 조지스큐-로이젠이 ‘탈성장’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sup>8)</sup> 그의 생태경제학을 탈성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조지스큐-로이젠과 라투슈의 논의를 중심으로 생태경제학과 탈성장론의 관계를 살펴 보려는 시도이다. 특히 생태경제학이 탈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 이론적, 현실적 함의를 갖게 되는지, 한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절과 3절에서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과 라투슈의 탈성장론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4절에서는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서,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라투슈의 탈성장 개념이 지닌 이론적, 실천적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Anti-Utilitariste\_dans\_les\_Sciences\_Sociales).

8) 다만 그의 글이 프랑스에서 1979년에 『탈성장: 엔트로피, 생태계, 경제(La Décroissance: Entropie, Écologie, Économie)』(Présentation et traduction de Jacques Grinevald et Ivo Rens, Paris: Éditions Pierre-Marcel Favre)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된 적은 있다.

## 2.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과 탈성장<sup>9)</sup>

조지스큐-로이젠에게 열역학 법칙은 인간의 경제행위와 자연환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그가 보기에, 경제행위는 자연환경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이를 다시 인간이 원하는 재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열역학 법칙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익히 알다시피, 열역학 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제1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제2법칙)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전자가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그 과정이 저엔트로피 상태에서 고엔트로피 상태로만 흐르는 비가역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그가 중시하는 것은 후자, 즉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는 이 법칙에서 비가역적인 엔트로피 흐름과 경제 과정의 상관성을 읽는다. 그 결과 경제 과정은 자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저엔트로피 상태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래서 엔트로피 상승이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된다(Georgescu-Roegen 1976, 53-54).

그는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에서 경제 과정의 진화법칙을 찾는다. 여기서 진화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이다. 그것도 시간에 대해 비가역적인 변화이다(Georgescu-Roegen 1966, 67-68). 또한 그는 경제 과정이 자연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로트카(A. J. Lotka)의 내신체기구(endosomatic instruments)와 외신체

---

9) 이 절의 내용은 대부분 이상호(2008) 2절에 기초하고 있다.

기구(exosomatic instruments) 개념을 수용한다. 전자가 행위주체의 신체기관을 지칭한다면, 후자는 신체기관 외부에 존재하는 것(노예, 생산수단, 노동자 등)을 지칭한다. 노예와 노동자는 이미 특정한 사회관계나 사회제도를 전제하며 생산수단 또한 사회 진화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 외신체기구는 경제 과정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가 보기에,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두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며 그래서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한다(Georgescu-Roegen 1976, 25).

그는 외신체기구의 변화를 사회진화와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인간만이 사용하는 외신체기구는 진화 속도가 내신체기구에 비해 훨씬 빠르다(Georgescu-Roegen 1977a, 362-363). 인간은 외신체기구를 이용해서 저엔트로피 상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므로, 이 기구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외신체기구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관계까지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심지어 그는 경제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시장제도, 화폐제도, 신용제도, 기업제도 등)의 진화를 외신체기구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Georgescu-Roegen 1986, 248-249).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회진화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다.<sup>10)</sup> 인간이 외신체기구를 이용해서 저엔트로피 상태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경우, 생산과정은 사회갈등 공간

---

10) 그래서 그는 생산과정을 “사회갈등의 현실적인 무대”(Georgescu-Roegen 1986, 251)로 이해한다.

으로 전환되며, 그래서 개인·집단·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외신체기구에 따라 개인적·사회적·국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Georgescu-Roegen 1992, 146-147).

외신체 기구가 인간의 경제행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외신체 기구의 이용은 인류에게 좀 더 빠른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장지상주의(Growthmania)를 야기하기도 한다. 성장지상주의는 자연환경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며, 설령 이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기술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열역학 법칙은 기술 혁신으로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장지상주의는 자원이갈문제를 유발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Georgescu-Roegen 1977a, 363-37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자연자원의 수용능력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생태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산물이다.

그의 생태경제학은 경제행위를 생물학적 활동의 연장으로 취급하는 데서 시작된다(Georgescu-Roegen 1986, 249). 그는 경제 과정의 생물학적 기원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인류의 생존문제가 이용 가능한 자원, 그것도 불균등하게 분포되거나 소유되는 자원의 제한된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놓여 있다(Georgescu-Roegen 1977a, 361). 인류의 생존이 이용 가능한 자원의 문제라면, 그의 생태경제학의 핵심 과제는 이러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는 곧 그의 생태경제학이 생물학적 성격보다 물리학(열역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 특성은 그가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viability)을 보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분명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태양에너지에 의존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일부만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기서 곧바로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기에, 태양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무공해 청정에너지일뿐더러, 저장(stock)인 화석연료와 달리 유량(flow)이기 때문에 고갈될 위험도 없다(Georgescu-Roegen 1976, 25-28). 문제는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생태경제학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전쟁수단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② 경제개발은 엔트로피 상승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은 후진국에 자본과 기술을 원조해야 한다. ③ 인구는 유기농법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④ 태양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⑤ 사치품의 생산·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⑥ 패션산업을 제거하고 상품의 내구성 중심으로 제조업을 재편해야 한다. ⑦ 내구재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⑧ 근면한 생활을 통해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창조적인 지적 작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해야 한다(Georgescu-Roegen 1976, 33-34).

여기서 우리는 그의 생태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을 억제함으

로써 엔트로피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4항에서 드러나듯이)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생태경제학은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이상적인 대안으로 추구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엔트로피 상승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가 맬더스와 그 후계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sup>11)</sup>

맬더스는 인구법칙을 통해 인구와 식량의 양적 균형을 중시한다. 인구는 결코 식량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맬더스 주의자들은 이러한 균형관을 계승해서 생태계 문제에 접근한다. 다만 이들은 이것을 인구와 식량의 관계를 넘어 인구, 자연환경(식량 포함), 경제성장의 관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맬더스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맬더스에게는 무한한 인구 증가가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재앙이라면, 이들에게는 무한한 인구 증가만이 아니라 무한한 경제성장 역시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재앙, 즉 생태계 문제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태계 문제의 해법은 균형 성장 또는 제로 성장(또는 안정상태)이다. 이른바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

11) 조지스큐-로이젠은 1971년 저작(*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의 출간 이후 로마 클럽의 요청으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저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 후반에 양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탈성장을 옹호하는 쪽(조지스큐-로이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옹호하는 쪽(로마 클럽)으로 나누어졌다고 평가된다(Levallois 2010).

제시된 것이다.

그러지만 조지스큐-로이젠은 이러한 대안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균형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제로 성장이나 안정상태(stationary state)조차 일정기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물리법칙에 대해 특권화된 위치를 지닌 안정상태란 존재할 수 없으며, 안정상태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성장률이 감소되는 상태, 즉 마이너스 성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Georgescu-Roegen 1976, 23-25).<sup>12)</sup> 물론 여기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놓여 있으며, 그래서 맬더스(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엔트로피 법칙을 간과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다(Georgescu-Roegen 2000, 225).

### 3. 탈성장의 문제의식과 라투슈

라투슈에 따르면, 탈성장은 경제성장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혹은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성

12) 그는 자신의 제자인 맬리(H. E. Daly)에 대해서도 밀의 안정상태를 전제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데(Georgescu-Roegen 1977b, 266-267), 맬리의 ‘균제상태 경제(steady state economy)’(Daly 1974) 또한 엔트로피 법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에는 조지스큐-로이젠의 ‘열역학 제4법칙’과 관련된 논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Georgescu-Roegen(1987, 8-9) 참조.

장 신화 혹은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Latouche 2012, 76-78). 그런데 성장은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sine qua non)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성장은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 기 쉽다. 이는 곧 탈성장론이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 신화에 대한 비판이자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한 비판일 수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그는 탈성장을 자본주의의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기초한다는 의미에서 좌파를 쇄신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으로 정의한다(Latouche 2012, 75-76). 그의 탈성장론이 종종 적녹연대 시도(a red-green planetarist provocation)로 평가(Eriksson & Andersson 2010, 131-132)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성장론자들이 라투슈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탈성장에 부합되는 의미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 델리(H. Daly)의 ‘균제상태 경제(steady state economy; Daly 1974)’를 생태경제학의 대안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종종 지속 가능성과 탈성장을 결합시킨 ‘지속 가능한 탈성장’을 강조한다(Kallis, 2011). 이들은 단순히 GDP나 경제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보다 그러한 감소 혹은 축소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경우, 지속 가능한 탈성장은 단순히 마이너스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신진대사가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GDP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정책을 통해 복지수준을 높이고 환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Kallis 2011, 874-876).

물론 지속 가능한 탈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에 바탕을 둔 탈성장 개념과 델리의 균제상태 경제(steady-state economy, SSE)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케르쉬너(C. Kerschner)는 델리의 균제상태 경제가 균형 성장 혹은 제로 성장을 강조하는 데 반해,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은 마이너스 성장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탈성장이 후자의 관점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Kerschner 2010, 544-545). 그러면서도 케르쉬너는 탈성장이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정한 균제상태 경제(equitable SSE)를 향해 나아가는 부유한 북반구의 경로일 수 있으며,<sup>13)</sup> 게다가 탈성장론이 균제상태 경제에 관한 강력한 역사적 기원과 델리의 거시경제적 개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성장 개념과 균제상태 경제가 대립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Kerschner 2010, 548-549).

그러나 델리의 균제상태 경제는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성장의 필요성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탈성장론에 포함된다기보다 이것의 비판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Eriksson & Andersson 2010, 131). 지속 가능한 탈성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13) 여기에는 남반구의 경우 여전히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장의 물리적 한계에만 주목할 뿐, 성장의 사회적 한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성장의 사회적 한계에 주목할 경우,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성장지상주의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탈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듯 보인다.

한편, 반 덴 베르그(J. C. J. M. van den Bergh)는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탈성장(degrowth)보다 비성장(a-growth)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GDP 증가나 성장은 사회복지나 진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없지만, 탈성장은 여전히 이러한 GDP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탈성장보다 오히려 GDP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비성장(a-growth)을 대안으로 제시한다(van den Bergh 2011, 885-886). 여기서 비성장(a-growth)은 경제성장에 관한 불가지론(agnosticism)과 무관심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인간(사회)의 진보를 무조건 GDP 성장이라는 틀로 이해하는, 불필요한 제약조건으로부터 벗어나 공적 의사결정에 대해 조금 더 이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van den Bergh 2011, 888-890).

안타깝게도, 반 덴 베르그의 비성장론은 탈성장론에 대한 오해를 안고 있다. 그는 GDP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탈성장보다 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탈성장론이 성장의 물리적 한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한계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GDP의 감소 여부가 아니라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을 것이다. 게다가 ‘a-growth(비성장)’은 탈성장론을 대표하는 라투슈가 처음 제시했던 것으로, 여기서 ‘a’는 불가지론의 ‘a’에 대응되는 의미가 아니라, 무신론(atheism)의 ‘a’에 대응되는 의미를 갖는다(Latouche 2009, 7-9). 라투슈에게 ‘a-growth’는 특별한 지표(GDP)에 대한 무시를 요구하는 개념이라기보다 근대사회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개념인 셈이다. 영어에서는 ‘a’보다 ‘de’가 이러한 해방 과정의 적극적 특성을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a-growth’보다 ‘degrowth’가 일반화된 것이다. 그래서 탈성장에서 ‘탈’은 단순히 경제규모의 감소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인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성장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Kallis 2011, 877).<sup>14)</sup>

라투슈의 탈성장론은 일차적으로 지수적 성장(exponential growth)이라는 목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단순히 GDP의 축소나 감소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지수적 성장, 즉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목표는 자본 소유자에게 이윤을 무한히 추구하게 함으로써 자연환경에 재앙을 안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성장과 돈의 논리에 사로잡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라투슈의 탈성장론은 성장의 물리적 한계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장의 사회적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14) 반 덴 베르그도 라투슈가 ‘a-growth’를 처음 사용했으며 무신론에 대응되는 의미로 ‘a’를 사용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라투슈가 ‘a-growth’를 여전히 급진적 탈성장(radical degrowth)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van den Bergh 2011, 886), 여기서 ‘급진적 탈성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서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다만 보나이우티가 탈성장론의 주요 배경으로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과 히르쉬의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강조하는 데 반해 라투슈는 경제에 대한 문화주의적 비평과 경제에 대한 생태학적 비평을 꼽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라투슈의 경우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이 경제에 대한 ‘생태학적 비평’을 대표<sup>15)</sup>한다면, 경제인류학의 경제학 비판(마르셀 마우스(M. Mauss), 칼 폴라니 등)이나 다양한 탈성장 담론(앙드레 고르(André Gorz), 코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 등이 경제에 대한 ‘문화주의적 비평’에 해당된다(라투슈 2015[2007], 22-26). 그렇지만 탈성장의 의미나 그 필요성에 관한 한 보나이우티와 라투슈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라투슈의 탈성장론에서 성장의 사회적 한계에 대한 비판은 주로 경제에 대한 ‘문화주의적 비평’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셈이다.<sup>16)</sup>

라투슈는 탈성장의 핵심 과제를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에서 벗어나는 데서 찾는다. 이와 같이 그가 가치관이나 신념체

---

15) 이 ‘생태학적 비평’에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투슈는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을 수용해서 서구 인간중심주의(western humanism)를 비판하거나(Latouche 2009, 97-98),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의 자치공동체(Municipalisme libertaire)를 수용하기도 한다(라투슈 2015[2007], 58).

16) 라투슈가 속한 모스 그룹 자체가 이미 경제인류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데다, 고르나 카스토리아디스의 견해 또한 그의 탈성장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계를 문제삼는 데에는 카스토리아디스의 영향이 강하게 놓여 있다 (Latouche 1996, ix).<sup>17)</sup> 카스토리아디스는 근대 서구문명의 출현 이후 사회의 상상적 의미작용(imaginary signification)에 따라 무한한 생산, 성장이 모든 인간 존재의 근본 목표라는 새로운 관념이 출현했으며, 이러한 관념이 근대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Castoriadis 1991, 181-190). 라투슈는 이와 같이 경제성장을 곧 인간 존재의 근본 목표이자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근대사회의 ‘상상적 의미 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력의 탈식민화’로 정의한다. 이는 곧 그의 탈성장론이 ‘상상력의 탈식민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임을 시사한다.<sup>18)</sup>

라투슈에 따르면,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복잡한 현실생활을 시장에서 표현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환원시키며,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감을 파괴시킨다. 공리주의의 도덕률은 ‘많은 것이 좋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자연은 인간의 정복대상으로 이해된다(Latouche 1993, 71-76). 그 결과, 근대사회는 경제적 가치가 인간 삶의 중심 기준(혹은 유일한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곧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관 혹은 신념체계가 지배하게 된다. 그는

17) 카스토리아디스의 자율성 논리가 탈성장을 위한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라는 견해 (Demaria et al. 2013, 199)도 있는데, 카스토리아디스가 탈성장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탈성장 혁명의 핵심은 우리의 상상력을 탈식민화하는 데 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다시금 세계에 마법의 주문을 걸어야 한다”(라투슈 2014[2012], 111).

이러한 가치관 혹은 신념체계를 발전지상주의(développementisme)나 경제지상주의(économicisme)<sup>19</sup>로 정의하는데(Latouche 2004, 24, 103). 이것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삶 또한 성장 중심의 논리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심리적·도덕적 불행(la misère psychique et morale)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탈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Latouche 2004, 115).

라투슈는 상상력의 탈식민화(décolonisation)를 상상력의 탈경제화(déséconomisation)로 정의하기도 한다(Latouche 2004, 115). 그는 경제지상주의나 발전지상주의가 가치관이나 신념체계를 식민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곧 상상력의 탈식민화로 이해하는 셈이다. 그가 보기에, 근대사회는 발전지상주의나 성장지상주의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늘리도록 강요한다. 여기서 생산 증대는 소비 증대로 여겨지고, 후자는 복지 향상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근대사회에서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 경제와 삶의 우선적인 목표이자, 심지어 유일한 목표가 된다(라투슈 2014[2012], 15-17).<sup>20</sup>

19) 라투슈의 '발전지상주의'나 '경제지상주의'는 조지스큐-로이젠의 '성장지상주의(growth-mania)'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 듯 보인다.

20) 라투슈가 보기에, 근대사회는 광고, 소비금융, 진부화(obsolescence)를 통해 끊임없이 과잉소비를 부추긴다. 여기서 진부화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유한계급론』에서 사용했던 용어로서, 크게 기술적 진부화, 계획적 진부화, 심리적 진부화로 구분된다. 기술적 진부화가 기술적 진보 때문에 기계와 설비가 구식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면, 심리적 진부화는 기술 혁신 없이 광고와 유행을 이용해서 제품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화는 곧 서구화(westernization)이자 동질화이다.<sup>21)</sup>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구 선진국의 생활양식을 모방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투슈는 근대사회에 대해 단일한 가치, 보편적 가치(합리성, 진보)에 기초한 거대 사회(the grand society)로 정의하며 이러한 사회의 등장 이후 생활은 단조롭고 단순해졌으며 심지어 건강까지 물신화되었다고 본다(Latouche 1993, 48-49, 91-94). 근대사회는 이렇게 동질화된 개인들에게 자신의 쾌락 혹은 소비량을 극대로 추구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개인들 사이의 야만적 경쟁이 곧 근대사회의 역동성으로 나타난다(Latouche 1993, 231-232)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은 자연, 미래 세대, 소비자 건강,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남반구의 국가 등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탈성장 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라투슈 2014[2012], 105-113). 이러한 변화를

---

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계획적 진부화는 인위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은 계획적 진부화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켜 제품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를 통해 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투슈 2014[2012], 23-34, 90-104).

21) 여기서 서양(the west)은 하나의 영토로 환원되지 않으며, 종교적·윤리적·인종적·경제적 실체(entity)도 아니다. 오히려 서양은 이 다양한 영역들의 종합(a synthetic union)으로서, “하나의 문화적 실체(entity)이자 문명화 현상”(Latouche 1996, 38)이다.

위해서는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바, 라투슈의 탈성장론이 반공리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Latouche 2004, 95). 그의 반공리주의는 발전지상주의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 그가 보기에, 탈성장은 사물들을 다르게 바라보면서 인간 삶의 중심에 생산과 소비의 확대가 아닌, 다른 의미 작용들(autres significations)을 놓는 데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Latouche 2004, 115-116). 이런 의미에서, 탈성장은 무한한 발전(boundless development)의 논리를 거부하고 적게 소비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더 좋은 생활(a better life)을 찾기 위한 것이다(Paolini 2008, 223).<sup>22)</sup>

라투슈는 맬더스주의를 탈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체제를 지배하는 것은 과잉의 논리이며, 그래서 부자들의 과잉소비가 주로 문제된다. 그러므로 인구감축이 곧 생태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맬더스주의의 판단은 오류이며, 인구문제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인구 감소보다 공정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에 주목해야 한다(Latouche 2009, 25-29). 게다가 그는 제3세계의 인구 폭발 문제 또한 단순히 의약품 효과가 아니라 탈문화(deculturation)나 서구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탈문화로 출산율을 조절하던 사회구조나 제도, 문화가 파괴된 데다 서구화로 이러한 조정 기준들의 근거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Latouche 1993, 222). 라투슈에

---

22) 탈성장의 목표는 “……우리가 적게 일하고 적게 소비하면서도 더 잘살 수 있는(can live better)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Latouche 2009, 9).

게는, 인구문제나 이와 관련된 생태계 문제 또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의 공정성 문제, 사회구조나 문화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인 셈이다.

라투슈는 탈성장을 자본주의와 자본축적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축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축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탈성장론은 기본적으로 반(反)자본주의를 전제하지만,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기에, 탈성장은 성장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성장 중심 사회의 변종들(variants)에 불과하다. 더구나 성장 중심 사회는 이른바 ‘근대성’의 특징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탈성장은 반자본주의이자 반근대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탈성장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고르의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에서 탈성장을 위한 대안을 찾는다(Latouche 2009, 88-92). 그는 ‘좌파를 쇠신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으로 탈성장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고르의 생태사회주의는 좌파를 쇠신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출발점인 셈이다.

특히 라투슈는 고르에게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수용한다. 고르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자유시간이 확대되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성장을 위한 관계보다 유대와 협동관계가, 타율적인 지배-권력관계보다 인격적 주체 간의 민주

적이고 자율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Gorz & Bosquet 1978, 27-28). 라투슈가 주목하는 부분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자유시간이 확대되는 측면이다. 이 경우,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Latouche 2009, 76-88). 그의 탈성장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단순히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시간의 확대를 통해 '상상력의 탈식민화', 즉 발전지상주의의 극복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도 기능하는 셈이다.<sup>23)</sup>

#### 4. 라투슈의 탈성장과 문화혁명의 한계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은 경제 과정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전제한다. 그래서 그는 열역학 법칙에 기대어 성장의 물리적 한계를 강조

---

23) 라투슈의 탈성장 프로그램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탈성장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식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960~1970년대 물질적 생산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적절한 환경세(eco-tax) 도입, 경제활동의 지역화, 전통 농업(peasant agriculture) 재활성화, 이익추구 생산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전환, 관계재(relational goods) 생산 유도, 에너지 절감, 광고 지출에 무거운 벌금(penalty) 부과, 기술과학적 혁신(technoscientific innovation)의 종말 선언 등이 그것이다(Latouche 2009, 68-71).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장지상주의까지 문제 삼는다. 성장지상주의는 성장의 사회적 한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의 생태경제학은 라투슈의 탈성장론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더구나 라투슈는 탈성장론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에 대한 ‘생태학적 비평’과 ‘문화주의적 비평’을 탈성장론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전자의 대표 사례로 조지스큐-로이젠을 꼽았다는 점에서, 라투슈의 탈성장론은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에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장의 물리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를 구분할 경우, 라투슈는 후자를 주로 경제에 대한 ‘문화주의적 비평’ 측면에서 문제 삼고 있으므로, 조지스큐-로이젠의 영향은 주로 성장의 물리적 한계 측면에서 나타난다. 라투슈는 조지스큐-로이젠과 비슷하게 발전이 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생태학적 이유(les raisons écologiques)나 지구의 유한성(la finitude de la planète)을 제시하거나(Latouche 2004, 15), 경제 과정이 엔트로피적 성격(nature entropique)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Latouche 2004, 91). 그러나 성장의 사회적 한계 측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 듯 보인다.

로지스큐-로이젠에게 엔트로피 법칙은 성장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에 그치지 않고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가 보기에, 성장지상주의는 자원 고갈 문제를 유발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며, 여기서 자원 고갈 문제는 궁극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라투슈에게는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가 매우 중요하

며, 성장의 사회적 한계 또한 여기서 비롯된 문제로 설명된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성장의 물리적 한계와 연결되거나 여기서 비롯된 사안으로 이해할 것인가(조지스큐-로이젠), 아니면 경제에 대한 ‘문화주의적 비평’ 측면에서 이해할 것인가(라투슈)의 문제로 집약된다.

대안을 설명하는 데서도 이와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지스큐-로이젠의 경우 엔트로피 법칙의 중요성 때문에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지만, 라투슈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상상력의 탈식민화’가 궁극적인 대안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핵심 관건이다. 두 사람 모두 성장지상주의나 발전지상주의를 비판하지만, 조지스큐-로이젠은 이것을 주로 엔트로피 법칙과 연결시켜 문제 삼는다면 라투슈는 주로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멜더스와 마르크스를 평가하는 데서도 이와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멜더스 비판의 경우, 조지스큐-로이젠의 핵심은 열역학 법칙, 즉 성장의 물리적 한계이지만, 라투슈의 초점은 성장의 물리적 한계보다 사회적 한계에 있다. 후자는 멜더스를 비판하면서 인구와 관련된 생태계 문제 또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의 공정성 문제, 사회구조나 문화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스큐-로이젠의 마르크스 비판 또한 엔트로피 법칙이 핵심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비슷하게 생산과정을 갈등과 투쟁의 영역으로 이해하지만, 마르크스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러한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저엔트로피 상태의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갈등이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Georgescu-Roegen 1977a, 368). 반면 라투슈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발전지상주의의 노예이며, 그래서 탈성장론의 또 다른 비판대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Latouche 1996, ix-x). 이는 곧 그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가치관이나 신념체계 중심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투슈의 경우,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의 문제는 단순히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조지스큐-로이젠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에 그치지 않는다. 라투슈에게 이 문제는 경제에 대한 '문화주의적 비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자신만의 탈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가 맬더스주의자들에 대해 근대사회의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와 같은 문화적 요인에 힘입어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을 탈성장론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탈성장과 다른 내용으로 탈성장론을 구축한 셈이다. 그의 탈성장론에서 공리주의나 여기에 기반을 둔 발전지상주의나 경제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탈성장론은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대안에 대해 문화 혁명(cultural revolution)으로 정의하기도 한다(Latouche 2009, 32).

물론 성장의 물리적 한계에 관한 한, 라투슈는 조지스큐-로이젠과 비

스한 견해를 보여준다. 라투슈 또한 경제 과정이 엔트로피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라투슈의 탈성장론은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조지스큐-로이젠은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경제구조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생태경제학 원리에 부합되는, 그래서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viability)을 보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할 뿐(Georgescu-Roegen 1976, 33-34),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라투슈의 탈성장론은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발전지상주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신념체계 사이에는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가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에 힘입어 작동되기도 하지만, 전자가 후자를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전지상주의의 극복을 외치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주장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남북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의 변화에 기초한 탈성장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꿈에 가깝다. 환경문제나 생태계 문제와 관련된 남북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의 변화, 즉 발전지상주의의 극복을 외칠 경우 이 갈등이 완화되기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sup>24)</sup> 그 결과,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탈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진국들 사

이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탈성장론이 부유한 국가들에 해당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탈성장운동이 중시되는 만큼 후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성장이 여전히 강조되는, 또 다른 의미의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운동이 필요할 수 있다 (Martínez-Alier 2013).

라투슈에게 탈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이자 좌파를 쇄신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이다. 이 기획은 초국가적인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운동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며, 후자는 남북 간 평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초국가적인 생태사회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문제와 삶의 질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이 조건은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곧 탈성장이 전 세계의 일부, 즉 글로벌한 북반구(global North)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Schwartzman 2012, 122-124). 그렇다면 그의 탈성장론은 기본적으로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시도

---

24)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견해 차이가 종종 매우 심각한 남북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탈성장론은 남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라투슈는 “북반구의 탈성장이 남반구의 새로운 사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기근, 유행병, 독재, 내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다”(Latouche 2004, 109)라고 주장할 뿐이다. 남반구가 발전지상주의나 이와 관련된 폐해에서 벗어나는 데 북반구의 탈성장이 중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지만, '상상력의 탈식민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가 이론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실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투슈의 경우, 남북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sup>25)</sup> 그는 탈성장을 8개 R(re-evaluate, reconceptualize, restructure, redistribute, relocalize, reduce, re-use, recycle)의 선순환 구조로 설명한다. 재평가(re-evaluate)가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대한 반성을 의미한다면, 재개념화(reconceptualize)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인간을 경제보다 중시하는 것이며, 재구조화(restructure)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생산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재분배(redistribute)는 부의 분배(선·후진국 간 재분배 포함)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접근기회의 재분배를 통해 소비 축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재지역화(relocalize)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가급적 지역의 생산물로 감당하도록 경제활동을 지역화하는 것이며, 축소(reduce)는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생물권(biosphere)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함과 동시에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것이며 재사용(re-use)이나 재생(recycle)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 진부화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탈성장 프로그램이 유토피아일 수

---

25) 남북문제에 관한 고민은 조지스큐-로이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보았듯이, 그는 8가지 생태경제학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2번째 항목이 엔트로피 상승을 최소화시키는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원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원조가 현실화된다면 탈성장론과 관련된 남북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원조를 현실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부재하다.

있지만, 단순히 환상(fantasy)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능성(objective possibility)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유토피아(concrete utopia)’라고 주장한다(Latouche 2009, 31-43). 그러면서도 그는 탈성장 프로그램의 경우, 전 세계가 동시에 수용하지 않는 한 현실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다(Latouche 2009, 76). 그렇다면 탈성장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유토피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수용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서 이와 관련된 노력 혹은 대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라투슈도 남북문제와 같은 지역 간 차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탈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think globally, act regionally)는 생태주의자들의 오래된 슬로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주장한다(Latouche 2009, 43-44). 그가 보기에, 남반구 국가들이 발전지상주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세계화와 서구화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Latouche 2004, 24). 이와 관련해서, 그는 남반구 국가들이 발전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태계에 부합되는 공동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26)</sup> 재지역화(relocalize) 맥락에서, 이러한 공동체는 생태친화적인 경제구조나 지역의 경제자율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관련된 정치적, 문화적 결정

---

26) 라투슈에 따르면, 제3세계의 서구화는 제3세계에 고유 문화 파괴, 모방 산업화 실패, 환경 파괴, 인구와 식량자원 간 균형 파괴 등의 폐해를 낳았다. 그러므로 남반구가 반공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반구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관점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하고 발전지상주의의 뒷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atouche 1996, xi-xii).

에 대해서도 자율권이 확보되는 상황을 전제한다(라투슈 2015[2007], 58-67).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위의 8개 R의 선순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는 이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힘들며, 그래서 이를 위한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Paolini 2008, 223).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투슈는 8개 R의 선순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남쪽의 가난한 국가들이 이 선순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물론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 탈성장을 위해서는 발전지상주의적 기획(Le projet d'évolutionnisme)을 위해 남반구 국가들이 진 모든 빛을 1년에 20%씩 점진적으로 탕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Latouche 2004, 104). 그렇지만 이렇게 남반구 국가들의 빛을 점진적으로 탕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라투슈는 자신의 탈성장론에 대해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유토피아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의 탈성장론은 '상상력의 탈식민화'나 발전지상주의 극복에 관한 세계적인 동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대안일지 몰라도 실천적인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기는 쉽지 않다. 아니, 남북문제까지 고려할 경우, 실천적인 맥락에서 그의 탈성장론은 구체적인 유토피아라기보다 거의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가깝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의 탈성장론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거나 자기모순에 직면한 듯 보인다. 문화적 요인에 힘입어 자신만의 탈성장론을 구축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유토피아로 정의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결과는 그의 탈성장론의 핵심 근거인 문화적 요인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모순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27)</sup>

라투슈가 자신의 탈성장론에 대해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유토피아라고 정의하는 한, 자기모순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그의 탈성장론을 실천적 대안이 아니라 이론적인 대안으로 여길 경우, 이러한 자기모순이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다. 자기모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자신의 탈성장론에 대해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유토피아라고 정의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탈성장에서 좌파를 쇄신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가 탈 성장을 구체적인 유토피아로 정의하는 입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결국 그가 자신의 탈성장론에 대해 구체적인 유토피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탈식민화’와 관련된 자기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27) 라투슈의 ‘구체적인 유토피아’는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에서 차용한 개념이다(Latouche 2009, 31-33). 이 책에서 블로흐는 추상적인 유토피아(abstract utopia)와 구체적인 유토피아(concrete utopia)를 구분한다. 전자가 비참한 현실을 보상받기 위한 환상(fantasy)이라면, 후자는 현실을 넘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한 것이며, 블로흐는 마르크스주의가 구체적 유토피아를 대표한다고 본다(Levitas 1989, 28).

## 5. 결론

라투슈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통해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설명함으로써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을 탈성장론으로 전환시켰다. 더구나 그는 지속 가능한 탈성장이나 델리의 정체상태 경제에 대해 성장지상주의나 발전지상주의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문화적 요인은 탈성장 진영 내부에서 자신만의 탈성장론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의 탈성장론에서 '상상력의 탈식민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이러한 탈성장론에 대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유토피아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라투슈의 주장과 달리, 그의 탈성장론은 구체적인 유토피아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상상력의 탈식민화'와 같은 문화적 요인의 변화, 그것도 전 세계 차원 변화를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화 혁명은 쉽지 않다. 여기에 남북문제라는 특성까지 고려할 경우, 이러한 문화 혁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수 있다.<sup>28)</sup>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탈성장론은 문화적 요인에 힘입어 자신만의 특성을 확보했지

---

28) 라투슈의 탈성장이 지속 가능한 탈성장이나 정체상태 경제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케르쉬너의 주장이 쉽게 부정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탈성장은 북반구의 목적인 반면 남반구는 장기적으로 탈성장을 추구해 되 중단기적으로는 정체상태 경제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탈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 바로 이 요인 때문에 현실성이 약화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는 그가 자신의 탈성장론을 구체적인 유토피아로 주장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주장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자기모순에 가깝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한계 혹은 자기모순은 문화 혁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생태계 문제와 관련된 문화 혁명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를, 그것도 전 세계 공통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물질적인 변화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라투슈의 탈성장론을 조지스큐-로이젠의 생태경제학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로 이해할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의 탈성장론이 쉽게 극복되기 힘든 한계 혹은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그가 자신의 대안에 대해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가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론적,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사실, 즉 문화 혁명을 시도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의 탈성장론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남북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확보할 경우 위와 같은 한계 혹은 자기모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나 생태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안의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가깝지만, 결코 쉽지 않다. 성장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성장과 환경의 조화,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그래서 이것보다 급진적인 탈성장을 확

보하기란 이미 처음부터 현실성이 높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라투슈의 탈성장론이 지닌 한계가 그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일정 부분은 탈성장론 자체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탈성장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생태경제학에서 탈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거의 필연에 가깝다. 그의 탈성장론이 '쉽게 극복되기 힘든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탈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탈성장론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탈성장론이 지닌 한계가 일정 부분 탈성장론 자체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면, 전자의 한계는 그의 한계를 넘어 탈성장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수정·보완의 과제일 수 있다. 그의 탈성장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504~~

## 참고문헌

- 이상호. 2008. “조지스큐-로이젠(N. Georgescu-Roegen)의 생명경제학과 플로우펀드 모델.” 『경제학연구』 56집 4호. 195-221.
- 라투슈, 세르주(S. Latouche). 2015[2007].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까? (Pétit Traité de la Décroissance sereine)』. 이상빈 옮김. 서울: 민음사.

\_\_\_\_\_. 2014[2012]. 『낭비 사회를 넘어서(Bon Pour La Casse)』. 정기현 옮김.  
서울: 민음사.

Bonaiuti, M. 2012. "Degrowth: Tools for a Complex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Crisi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30-50.

Braillard, P. 1982. *L'Imposture du Club de Rom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astoriadis, C. 1991. "Reflection on 'Rationality' and 'Development'." D. A. Curtis, ed. *Philosophy, Politics, Autonomy*. Oxford: Oxford Univ.

Daly, H. E. 1974. "The Economics of the Steady Stat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4(2), 15-21.

Demaria, F., F. Schneider, F. Sekulova, & J. Martinez-Alier. 2013. "What is degrowth?: From an Activist Slogan to a Social Movement." *Environmental Values*, 22(2), 191-215.

Ellwood, W. 2014. *The No-Nonsense Guide to Degrowth and Sustainability*. Oxford: New Internationalist.

Eriksson, R. & J. O. Andersson. 2010. *Elements of Ecological Econom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Georgescu-Roegen, N. 2000. "Nicholas Georgescu-Roegen(1906-1994)." P. Aretis & M. Sawyer, eds.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Dissenting Economists*, 2nd ed. Cheltenham: Edward Elgar.

\_\_\_\_\_. 1992. "Nicholas Georgescu-Roegen About Himself." M. Szenberg, ed. *Eminent Economists: Their Life Philosophies*. Cambridge Univ.

\_\_\_\_\_. 1987. *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 in Retrospekt*. Berlin: Schriftenreihe des IÖW.

- \_\_\_\_\_. 1986. "Man and Production," M. Baranzini & R. Scazzieri, eds, *Foundations of Economics-Structures of Inquiry and Economic Theory*. Oxford & New York: Basil Blackwell.
- \_\_\_\_\_. 1977a. "Inequality, Limits and Growth from a Bioeconomic Viewpoint," *Review of Social Economy*, 35(3), 361-375.
- \_\_\_\_\_. 1977b. "The Steady State and Ecological Salvation: A Thermodynamic Analysis," *Bioscience*, 27(4), 266-270.
- \_\_\_\_\_. 1976. *Energy and Economic Myth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_\_\_\_\_. 1966. *Analytical Economics*, Cambridge: Harvard Univ.
- Gorz, A. & M. Bosquet, 1978. *Écologie et Politique*, Paris: Éditions de Seuil.
- Hirsch, F. 1999.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
- Kallis, G. 2011. "In defence of degrowth," *Ecological Economics*, 70(5), 873-880.
- Kerschner, C. 2010. "Economic de-growth vs. steady-state economy," *Journal of leaner Production*, 18(6), 544-551.
- Latouche, S. 2012. "Can the Left Escape Economism?,"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74-78.
- \_\_\_\_\_. 2009. *Farewell to Growth*,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4. *Survivre au Développement*, Paris: Mille Et Une Nuits.
- \_\_\_\_\_. 1996. *The Westernization of the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93. *In the Wake of the Affluent Society*, London: Zed Books Ltd.
- Levallois, C. 2010. "Can de-growth be considered a policy option? A historical note on Nicholas Georgescu-Roegen and the Club of Rome," *Ecological Economics*, 69(11), 2271-2278.
- Levitas, R. 1989. "Marxism, Romanticism and Utopia: Ernst Bloch and William

- Morris.” *Radical Philosophy*. 51, 27-36.
- Martinez-Alier, J. 2012. “Environmental Justice and Economic Degrowth: An Alliance between Two Movement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51-73.
- \_\_\_\_\_. 2009. “Herman Daly Festschrift: Socially Sustainable Economic Degrowth,” *The Encyclopedia of Earth Topic* (<http://www.eoearth.org/view/article/153488/>).
- Paolini, F. 2008. “Degrowth: A Slogan for a New Ecological Democracy.” *Global Environment*, 2, 222-227.
- Schwartzman, D. 2012. “A Critique of Degrowth and its Politic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119-125.
- van den Bergh, J. C. J. M. 2011. “Environment versus Growth-A criticism of degrowth and a plea for a-growth.” *Ecological Economics*, 70(5), 881-890.

## Abstract

### Ecological Economy and Degrowth

Focused on the Relation of Georgescu-Roegen and Latouche

Lee, Sang Ho

Dongguk University

Latouche describes the social limits to growth through cultural factors such as values and belief systems and converts Georgescu-Roegen's ecological economics to his own degrowth theory. Moreover, he criticizes sustainable degrowth or Daly's steady state economy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free from growthmania or developmentalism. And therefore, changes in cultural factors, namely the Cultural Revolution is also the basis on which to build his own degrowth theory to him. In his degrowth theory, why 'Decolonization of imaginary' or Overcoming the developmentalism has an important meaning is right here. However, decolonization of imaginary is not easy in reality, so degrowth theory through it is difficult to become a concrete utopia seeking an objective possibility. In this sense, his degrowth theory is ensured his own characteristics by being based on cultural factors, but this theory conflicts with his own assertion that it is a concrete utopia because of these factors. In this point, I can say that this theory holds a self-contradiction.

■ **Keyword:** Ecological Economics, Degrowth, Decolonization of Imaginary, Developmentalism, Cultural Revolution

투고 : 2016/2/24 심사 : 2016/4/25 확정 : 2016/5/12